

90분 헛심 공방...5경기 무승 광주, 꿀찌 탈출 불발

13개 슈팅 날렸지만 무득점...제주와 홈경기서 0-0 무승부 K리그2 전남은 안산 2-0 꺾고 연승...시즌 첫 선두에 올라

광주FC가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5경기 만에 승점을 보였다.

광주가 1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2021 17라운드 홈경기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13개의 슈팅(유효슈팅 7개)이 아쉽게 모두 골대를 비켜나면서 승리는 만들지 못했지만 4연패 끝에 승점 1을 만들었다.

5월 안방에서 처음 치르는 경기, 연패 탈출이라는 중요한 과제도 있었던 만큼 광주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승부에 나섰다.

헤이스가 전반 9분 프리킥 상황에서 직접 슈팅을 노려봤지만, 골키퍼 품으로 향했다. 38분에는 이인기의 위협적인 슈팅이 나왔지만, 이번에도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

후반 시작과 함께 골키퍼 윤보상이 팀을 구했다. 이창민의 프리킥에 이어 주민규의 헤더가 이어졌고, 윤보상이 좋은 수비로 실점을 막았다.

후반 7분에는 엄지성이 골키퍼를 마주하고 터닝슛을 시도했지만, 수비수에 맞았다. 26분에는 이희균이 페널티 진영까지 올라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 막혔다.

23분 뒤에서 길게 올라온 공이 헤이스의 머리 맞고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엄원상 앞에 떨어졌다. 하지만 골키퍼 오승훈이 달려 나오면서 제대로 슈팅이 이뤄지지 못했다.

후반 25분 엄원상이 다시 한번 중거리 슈팅을 시

도했다. 하지만 매섭게 날아간 공이 골키퍼에 안겼다. 흐른 공을 잡은 김주공의 슈팅은 힘과 세밀함이 떨어졌다.

기회를 놓친 광주가 후반 27분 김오규의 헤더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후반 막판 광주가 거세게 제주 골대를 두드렸다.

후반 38분 김원식의 중거리 슈팅 뒤, 41분에는 이민기가 공을 빼앗아 상대 진영까지 내달렸다. 엄지성에게 공이 연결됐고, 원발 슈팅까지 나왔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3연패 중이었던 제주도 후반 종료 직전 정우재의 원발로 마지막 공략에 나섰지만 골대를 벗어나면서 두 팀은 승점 1점씩을 나눠갔다.

김호영 감독은 "4연패 중이었는데 우리 팀한테 승리가 간절했다. 압박을 통해 빌드업을 차단하려고 준비한 대로 선수들이 잘 해냈다. 찬스에서 득점 못한 게 아쉽지만 실제 상황을 막으면서 막판에 실점했던 부분을 극복했다는 것, 연패를 끊었다는 것에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전남드래곤즈는 연승에 성공하면서 시즌 처음 선두로 치고 올랐다.

전남은 지난 17일 '던데이 나이트 풋볼'로 경기로 진행된 안산그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앞선 경남 원정에서 2-0으로 이기며 2위 탈출에 성공했던 전남은 최근 기세가 꺾인 FC안양을 끌어



광주FC의 헤이스가 1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17라운드 홈경기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내리고 1위까지 올랐다.

초반 안산의 공세에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전남이 전반 17분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앞선 경남 원정에서 2-0으로 이기며 2위 탈출에 성공했던 전남은 최근 기세가 꺾인 FC안양을 끌어

르면서 선제골을 만들었다.

이어 전반 29분 안산 최경주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쉽게 경기가 풀리지 않았다. 후반 23분에는 사무엘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어려운 승부가 이어졌지만, 전남은 후반 39분 발로텔리의 발로 2-0을 만들면서 승부에 쐬기를 박고,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내 마지막 도전, 메달로 마무리할 것”

여자배구 김연경 “올림픽 대장정 시작...최선 다해 준비”

여자배구대표팀 주장 김연경(흥국생명)은 2021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개막을 앞두고 최종 목적지인 도쿄올림픽 메달획득을 향해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연경은 19일 대한민국배구협회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제 도쿄올림픽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도쿄올림픽은 (내 인생의) 마지막 올림픽이다. 메달 획득으로 좋은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연경은 대표팀 합숙 훈련이 열리는 인천선수촌에 합류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VNL을 준비하고 있다.

김연경은 “VNL의 일정이 다소 빡빡해서 약간 걱정되지만, 15명의 선수가 가는 만큼 충분히 로테이션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다”라며 “VNL을 도쿄올림픽 준비과정으로 여기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연경은 주장답게, 후배들을 다독이며 훈련하고 있다.

그는 “젊은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어서 대표팀 분위기가 좋다”며 “대표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어린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고 밝혔다.

도쿄올림픽에 관한 구체적인 생각도 전했다.

김연경은 “진천 선수촌에 있는 올림픽 D데이 계산기가 켜지는 것을 보면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고 있다”며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도쿄올림픽은 (내 인생의) 마지막 올림픽이다.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연경이 19일 대한민국배구협회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2021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준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재영을 대신할 주전 레프트 공격수로 낙점받은 이소영(KGC인삼공사)은 김연경과 함께 좋은 플레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 시즌 중 연경 언니와 같은 코트에서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대표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어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언니에게 많은 것을 배우면서 한 단계 성장할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1일 0시 4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VNL이 열리는 이탈리아로 떠난다. /연합뉴스

토트넘, UCL 티켓 불발...첼시 승리로 4위 희망 사라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가 레스터시티에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패배를 안겼음에도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본선 진출권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은 첼시의 승리로 다음 시즌 UCL 진출의 기회가 사라졌고, 유로파리그 티켓을 노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첼시는 1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와 2020-2021 EPL 37라운드 홈 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승점 67을 쌓은 첼시는 레스터시티(승점 66)를 4위로 끌어내리고 3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1경기를 덜 치른 5위 리버풀(승점 63), 6-7위

토트넘 및 웨스트햄(이상 승점 59)과 승점 차를 각각 4점과 8점으로 벌린 첼시는 다음 시즌 UCL 본선 티켓(1~4위) 확보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런 가운데 6위 토트넘은 첼시가 레스터시티를 꺾으면서 UCL 출전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레스터시티가 이겼다면 토트넘은 첼시와 승점 차가 5점으로 유지돼 막판 뒤집기를 노려볼 수도 있었지만, 레스터시티의 패배로 토트넘의 '톱4' 희망은 사라졌고, 최소 6위까지 주어질 수 있는 유로파리그 티켓 지키기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첼시는 마침내 후반 2분 오른쪽 코너리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한 안토니오

루디거가 날아온 볼을 몸으로 밀어 넣어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21분에는 베르너가 유도한 페널티킥을 조르지뉴가 키퍼로 나서서 결승 골을 꽂으며 승부를 더 기울였다.

첼시는 후반 31분 레스터시티의 켈레치 이해아 나초에게 추격 골을 내줬지만 더는 실점하지 않으면서 승리를 완성했다.

한편, 이미 최소 4위 자리를 확보하며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강등권인 18위 풀럼과 1-1로 비겼다.

또 이미 EPL 우승을 확정된 맨체스터 시티는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 10명이 싸우는 수적 열세 속에 2-3으로 역전패했다. /연합뉴스

역시 만수르...맨시티 팬 UCL 결승전 관람 비용 쓴다

항공료 등 여행 경비 지원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구단주이자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이 또 한 번 이름을 걸었다.

맨시티는 18일(이하 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에 “만수르 구단주가 이달 말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리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관람할 우리 팬들의 항공료와 교통비 등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대유행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팬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이번 계획으로 수천 명의 맨시티 서포터스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2021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은 잉글랜드 팀인 맨시티와 첼시와 대결로 오는 30일 오전 4시 포르투의 드라강 경기장에서 열린다.

UEFA는 결승전을 유관중 경기로 치르기로 하고 맨시티와 첼시의 서포터스를 위해 6천 장씩의 입장권을 할당했다.

2008년 구단을 인수한 만수르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덕에 유럽 최강 클럽 중 하나로 성장

한 맨시티는 UCL 결승에 처음 진출해 우승까지 노린다.

만수르 구단주는 “페르 프리드리히 감독과 선수단이 엄청난 시즌을 보냈다. 매우 어려운 한 해를 겪으면서 UCL 결승에 오른 것은 우리 구단에는 역사적인 순간이다”라면서 “좋은 때나 나쁠 때나 맨시티를 오랫동안 지지해준 팬들이 가능한 한 많이 이 특별한 경기를 관람할 기회를 얻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통 큰 결심의 배경을 밝혔다.

구단은 원정 응원 준비와 입장권 구매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공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미트 링: 더 라스트 챔퍼
2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미트
3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미트, 더 스파이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4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미트 토토레! 우리 둘만의 여름
5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미트
6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미트
9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미트, 스파이럴 아들의 이름으로
7관 세네카룸	스파이럴, 비외 당신의 이야기 혼자 사는 사람들, 아들의 이름으로
8관 세네카룸	도라에몽: 스텐바이미 2, 내일의 기억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링: 더 라스트 챔퍼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심규선, 달의 뒷면처럼 외로웠던 우리

일시: 2021.05.28.(금)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4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윤 피아노 리사이클

일시: 2021.06.26.(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